

'뒤집어버려!' 오비맥주, 영동대로서 거리응원전

월드컵 기간 내 다양한 행사

오비맥주는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기간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일정에 맞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거리 응원전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뒤집고 월드컵 본선의 판도도 뒤집어버리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뒤집어버려!'를 월드컵 마케팅 주제로 정한 카스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뜨거운 국민적 열기와 감동을 재현하는 취지로 이번 대규모 국민 참여 응원전을 기획했다.

카스는 응원 열기를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 2018 러시아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현대자동차와 코카콜라, 아디다스와 협업해 월드컵



카스 월드컵 패키지.

/오비맥주

을 주제로 매 경기 당일 4시간 전부터 다양한 사전 행사를 펼친다.

카스와 함께 젊음의 도전 정신을 담아 '뒤집어버려' 음원 제작 프로젝트를 선보인 힙합 레이블 AOMG의 박재범, 사이먼디, 로꼬, 그레이를 포함해 청춘을 대표하는 인기

아티스트들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카스는 대규모 응원전과 함께 짜릿한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에도 응원 열기 조성을 위해 코엑스 광장에 상시 부스를 운영한다. 카스 판매 부스인 '뒤집어바(Bar)'를 포함해 스크린 축구 게임, 포토월 인증샷 이벤트를 선보인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을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번 거리 응원전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의 열띤 응원과 간절한 바람이 월드컵의 판을 뒤집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 축구 대표팀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서울경찰청과 '교통문화 캠페인'

CJ대한통운은 18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19일 서울지방경찰청과 '민·경 협력 공동체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정승원 경사가 CJ대한통운 택배기사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브레이크 풀린 차량 온몸으로 멈춰 세운 시민에 'LG의인상'

LG복지재단은 지난달 28일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서 브레이크가 풀린 채 비탈길을 돌진하던 내려가던 차량을 온몸으로 멈춰 세운 황창연(50, 사진)씨에게 'LG의인상'을 전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진도군청 공무원인 황창연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퇴근을 하던 중 진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경사로에 세워둔 차량이 갑자기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차량 안에는 학원 수업을 마친 초등학교 생 여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운전자는 기어와 제동장치를 허술하게 해놓은 사실을 모른



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몸을 반쯤 차 안쪽으로 집어넣은 황씨는 기어를 바꾸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

채 아이들을 배웅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황씨는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망설임 없이 달려가 차 문을 잡고 한 쪽발로 버티며 차량을 세워보려 하

당겨 적극적으로 차량을 멈춰 세웠다.

차를 멈추지 않았다면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황씨는 차량에 매달려 멈추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튕겨져 나가 척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황씨는 "아이들이 타고 있어 세워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단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사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오늘의 운세 6월 19일 (음 5월 6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니 배우자의 도움을 받자. 60년생 하나를 뿌렸는데 열 개로 돌아온다. 72년생 남에게 해를 끼치면 두 배로 돌아오니 주의하자. 84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하자.
- 소** 49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오는 법. 61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마음이 편하다. 73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하자. 8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돌 곳을 모르겠다.
- 호랑이** 50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았으니 조금 참고 기다리자. 62년생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74년생 타인의 실수가 내게 득이 된다. 86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모든 것은 문서로 남겨둬라.
- 토끼** 51년생 격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63년생 가족간에 공과 사를 다룰 일이 생긴다. 75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87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라.
- 원숭이** 52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리는 없다. 64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하자. 76년생 어린 사람과 다툼이 생기니 주의. 88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자.
- 뱀** 53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피라. 65년생 돼지띠와의 계약은 잘 이루어진다. 77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한 날. 89년생 작은 결함이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

- 말** 54년생 올라가는 대로 버려두는 것이 상책이다. 66년생 거울인가 했는데 매화가 피었으니 희망이 보인다. 78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90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 행동할 때이다.
- 양** 55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6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지출을 하는 것도 좋다. 79년생 내가 편안해야 일도 잘 풀린다. 91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 원숭이** 56년생 나의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즐겁다. 68년생 금할수록 돌아가라 했으니 서두르지 마라. 80년생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 92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날.
- 닭** 57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69년생 작은 먼지가 눈물을나게 하니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81년생 초대된 손님 아닌 것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93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날이다.
- 개** 58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70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여겨라. 82년생 오랜 적선이 드디어 나에게 돌아온다. 94년생 욕심을 부리면 일이 헛되어 성사되기 힘들다.
- 돼지** 59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71년생 횡재수가 있거나 지손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83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95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해 보자.

김상회의 四季 자녀 사주 알고 계시는지요?

"체질을 생각했을 때 자녀에게 어떤 음식이 도움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요즘 아버지들은 거의 감수 수준일 것이지만 옛날과 달리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지만 사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모입장에서 아이의 건강에 남달리 신경을 쓴다면 아이의 사주를 조금은 알고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음양오행은 동양의학의 뿌리이기도 하다. 오행은 서로 상생과 상극의 성질을 갖는데 사주에 타고난 음양오행에 따라 개개인의 체질이 결정된다. 음양오행을 알면 조심해야 할 질병, 몸에 좋은 음식 등을 알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사주와 음양오행을 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음식과 체질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식약동원(食藥同原)이라는 말은 의학의 근원처럼 쓰이고 있다. 먹는 것과 약은 같다는 의미인데 음식이 약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는 말이다. 아이들은 흔히 인스턴트 음식 먹는 걸 즐기는데 당장 입에서 맛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빠들은 그런 음식을 적게 먹으라고 말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흔히들 비싸고 맛있는 고기를 사주면서 막연하게 몸에 좋을 거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체질을 알면 고기가 무조건 좋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다. 아이가 화 체질이라면 된장이나 미역 같은 음식이 좋고 단백질을 공급할 때도 콩이나 콩으로 만든 두부 같은 음식이 좋다. 목 체질은 과일을 좋아하는 식성이다. 복숭아나 배 등이 몸에 잘 맞고 마늘이나 양파, 고추 같은 자극적 양념을 좋아한다. 금 체질은 간이 튼튼하다. 술이 강해서 과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려서부터 주의를 주면 평생의 도움이 된다. 음식은 봄철에 맛이 좋은 냉이나 숙 그리고 근대 같은 쓴맛이 나는 음식이 몸에 좋다. 평일에 일하느라 늦게 들어오고 술 한 잔 하느라 아이들과 같이 못한 아버지들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주말에 맛있는 외식을 하며 아이들을 달랠다. 그러나 지나친 외식은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 있다. 맛있는 음식 위주로 골라서 먹다보니 과식을 하고 비만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좋은 건 주말에 집에서 아이들과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서툰 어도 아이 체질에 맞는 음식을 함께 만들다 보면 가족 관계는 물론이고 아이들과의 소통도 쉬워진다. 몸이 귀찮기는 하지만 그것만 빼면 손해 볼 게 없다. 타고난 체질을 알아두면 외식을 할 때도 이집 저집을 떠돌지 않게 된다. 건강도 지키고 맛도 찾는 환상의 조합이 가능하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1	5				8	4	9
8			9		5			6
3								5
	3		8				9	
		3		4				
	8			2			5	
4								2
2			6		7			1
9	6	3				4	7	8

7								5
		2	5		3	8		
	8		1		6		3	
	4	6	8		1	9	2	
	2	5	9		7	1	6	
	6		4		9		7	
			3	7		5	2	
2								6

스도쿠 정답

8	1	5	9	6	3	2	7	4
1	8	2	5	9	6	3	7	4
3	9	5	6	8	1	7	2	4
5	9	6	7	2	8	1	3	4
2	8	1	9	6	5	7	4	3
7	6	3	8	5	2	4	9	1
5	2	8	1	7	9	6	3	4
9	1	5	2	6	7	8	4	3
6	7	8	9	2	5	1	3	4
9	6	7	8	1	5	2	3	4
1	8	2	5	9	6	3	7	4
3	9	5	6	8	1	7	2	4
5	9	6	7	2	8	1	3	4
2	8	1	9	6	5	7	4	3
7	6	3	8	5	2	4	9	1
5	2	8	1	7	9	6	3	4
9	1	5	2	6	7	8	4	3
6	7	8	9	2	5	1	3	4
5	9	6	7	2	8	1	3	4

문제 제공= 보스